이달의 어항 ㊸ – 고흥지역 해상교통의 중심지 녹동항

눈과 입을 모두 만족시키는 매력적인 항구, 녹동항

매년 5월이면 열리는 '녹동 바다 불꽃축제'의 개최지로도 유명

맛과 아름다운 풍광 그리고 역사가 녹아있는 어항이 있다. 바로 녹동항이다. 녹동항은 고흥지역 해상교통의 중심지항으로 인근 각 섬 지역을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어 주변 섬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모두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어촌의 다양한 수산물과 함께 인접해 있는 소록도는 여행객들의 발길을 끌어 모으며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199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녹동항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녹동신항 건설 공사를 진행하여 현재는 구항과 신항으로 나뉘어 있다. 구항에는 녹동재래시장이 들어서 있고, 신항에서는 제주도와 거문도 여객선이 운항중이다. 녹동구항을 관광과 어촌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다기능어항으로 개발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녹동-소록도-거금도간 연육교 가설 사업이 2008년 완료될 예정이다.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남방파제 270m, 오동도방파제 150m, 파제벽 1식, 파제제 130m, 물양장 435m, 선양장 30m가 완공되었고, 수산현황은 전업 216가구 436명, 겸업 542가구 1401명, 지방어선 754척이 있으며, 돔, 농어 등이 주 어종으로 연간 어업생산량은 2,840MT이다.

녹동항의 주변 관광지로는 무열사(武烈祠), 쌍충사(雙忠祠), 소록도가 있다. 무열사는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때 큰 공을 세운 무장 진무성(陳武晟) 장군을 추모하기 위해 지은 사우(祠宇)이다. 진무성 장군은 조선 중기 무신으로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순신 장군 휘하의 군관으로 공을 세우고 용명을 날린 인물이다.

조선 중기의 무신인 이대원(李大源)과 정운(鄭運)을 배향한 사우인 쌍충사는 봉암리 해안가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다. 언덕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면 녹동항과 소록도가 바로 보일 정도로 자연 경관이 뛰어나다.

인근에 위치한 소록도에는 울창한 송림과 백사장이 잘 어우러져 있는 소록도 해수욕장이 있어 병원 방문과 연계하여 하루를 보내기에 적합하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섬 내 숙박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오후 6시 이전에 반드시 육지로 돌아와야 한다는 점이다. 녹동항과 소록도는 최근 '녹동 바다 불꽃축제'의 개최지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다. 녹동항을 알리고 한센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국립소록도병원 개원일인 5월 17일에 맞추어 매년 진행되는 이 행사는 축제를 즐기면서 소록도의 역사도 공부할 수 있어 가족여행지로 녹동항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

먹거리는 인근 섬에서 생산되는 활어와 김, 미역, 다시마, 멸치 등이 거래되는 선창가 수산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 활전복, 쌈쇠미역, 쌈다시마, 건미역, 알굴, 구이김 등은 배송주문도 가능하여 집에서도 편리하게 바다의 맛을 즐길 수 있다.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노란 유채꽃 밭 너머 드넓은 바다 앞에 도달한 순간 녹동항은 최고의 추억이 될 것이다.

♣ 가는 길 – 호남고속도로 주암IC, 또는 순천IC→벌교(15 · 27번 국도)→고흥(27번 국도)→녹동항